

목포항·여수광양항 ‘물류허브’ 활성화

전남도 내년 예산 1,265억
신규·계속사업 16개 반영
일자리 창출·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국가부역항 활성화 사업으로 1,265억 원이 반영돼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목포항을 서남권 지역 핵심산업 지원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신규사업으로 ‘목포 대반동 수제선 정비사업’ 1건과 계속사업으로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사업’ 등 15개 사업이 반영됐다.

여수광양항에는 8개 사업 790억 원이 편성돼 항만배후단지 확대와 신규 부두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을 위해 ▲북측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사업 25억 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 146억 원이 반영됐다.

새 일자리 창출과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10억7,000만 원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7,000만 원 ▲묘도 항만재개발 재정지원 사업 100억4,000만 원이 포함됐다.

여수 석유화학 부두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포부두 재개발(Renewal) 사업 86억 원 ▲제2 석유화학부두 건설 30억 원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 388억 원을 확보했다.

목포항에는 7개 사업 475억 원이 반영

됐다. 반영 사업은 ▲목포·제주 간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과 화물증가에 따른 원활한 화물 처리를 위한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사업 1억 원 ▲목포 내항 여객기능의 복합 이전에 따른 복합 어선 물양장 건설공사 149억 원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개설 사업 40억6,000만 원 ▲원도심 회복과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남향 매립지의 남향 투기장 환경개선사업 35억 원 ▲고하도 경관조명 조망과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반동 스카이워크 설치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노후 항만시설 정비를 위한 대반동 수제선 정비사업 4억 원이다.

목포신항의 주요 화물인 수출 및 환적 자동차 물동량과 철재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사업 101억 원 ▲

신항 제2자동차부두건설사업 1억 원 ▲신항 예부선 부두 건설공사 143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광양항 자동차컨테이너 부두 구축사업비는 올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신항 제2 자동차부두 건설사업은 부두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2개 사업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하는 대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목포항·여수광양항 항만 활성화 분야 국비 확보로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핵심 산업 지원 중심 항만으로, 여수광양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시민안전 등 7개 반 구성

광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 및 비상상황 관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반, 성묘의료반, 교통반, 환경·청소반, 시민안전반, 소방반, 급수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 방역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및 5개 구청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콜센터(062-613-3326-7)를 정상운영하며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과 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0곳과 응급실운영 신고기관 4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곳 및 문예의료기관·약국을 지정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중점관리시설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대체도 확립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중교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유형주점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35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로 방역위약계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명절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대중교통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연휴기간에도 철저한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붐 안당을 폐쇄하는 영락공원과 망월묘지는 온라인 추모의 방과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성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이동 자제를 권유하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명절 전 지하철실운영 신고기관 4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곳 및 문예의료기관·약국을 지정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중점관리시설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대체도 확립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중교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 1년 한시 인하

12월까지 최대 80% 감면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전라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이다.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휴업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부서(분청·사업소) 및 해당 시군(회계과 등)에 하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분을 환급해준다. /길용현 기자



패럴림픽 광주선수단 환영행사

13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도쿄 패럴림픽 출전 광주선수단 환영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장 등 참석자들이 전체 선수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악신도시 ‘정원 페스티벌’ 첫 개최

16일부터 4일간 김대중 광장
작가·상가정원 등 43개 선포

전남도가 16일부터 4일간 남악신도시 김대중 광장에서 ‘제1회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정원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정원 소풍, 무한한 컷(CUT) 정원’을 주제로 열린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작가정원 8개소, 주민참여정원 15개소, 상가정원 20개소 등 총 43개의 크고 작은 정원을 선보인다.

작가정원은 ‘나이트가든’을 주제로 김대중광장 일원에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질

높은 정원으로 꾸며, 도민이 정원을 즐기도록 행사 이후에도 존치한다.

주민참여정원은 도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게형 ‘벤치가든’을 주제로 조성한다. 정원별로 솔로, 연인, 가족 등의 소주제를 표현한다.

상가정원은 상가 앞 ‘원도가든’을 주제로 남악의 상가들이 직접 자신의 상가를 꾸미는 정원이다. 행사 기간 방문객 포토존 역할과 아름다운 거리경관 연출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43개 정원 중 작가정원 4개소, 주민참여정원 4개소, 상가정원 5개소 등 13개 우수정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개막식은 16일 오후 6시 30분 남악신도시 김대중광장 행사장에서 열

린다. 김영록 전남지사, 남태현 산림청 차장, 서삼석 국회의원, 김산 무안군수와 남악신도시 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정원 점등식이다. 정원이 조명과 함께 남악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행사장 곳곳에선 부대행사로 포토존과 정원 사진전, 어린이 식물 탐사대, 정원 처방행사, 정원 작가 토크 등을 진행한다.

방문객과 참여 상가를 위한 ‘무한한 컷 정원소풍’ 이벤트도 열린다. 지정 상가나 작품의 인증샷 미션 수행을 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원 페스티벌에 많은 도민이 찾아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일 발전기금 설치 공청회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오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재단설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발전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 위탁사업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가 발표하고, 전주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선업 지용화계법인 대표, 나주몽 전남대 교수, 박철 행정안전부 서기관, 변정호(진화계법인), 이상준 동신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발전재단 설립방안 마련 및 타당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조기철 기자

도시를 디자인하는 밸류 크리에이터!

풍요롭고 균형잡힌 국토공간과 선진국형 부동산 개발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과 도시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입니다.

부동산개발 업무 협약 및 회원가입 문의 062) 956-1004

www.koda.or.kr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호남지회는 회원 서비스 강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로운 먹거리 발굴,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 도모,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